

“정진에만 몰두하되 늙어서도 권태 느끼지 않았다”

27 천년 은행나무도량
용문사

양평 용문사의 트레이드마크는 은행나무입니다. 나이가 천년 하고도 백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은행나무는 의상대사의 지팡이라는 설과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올라가다가 '지팡이마저도 버리자'며 꽂아 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설이나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마의태자의 지팡이라는 데 마음을 더 줍니다. 학식 높은 고승보다 비운의 태자에게 더 쫄리는 것이 중생의 마음인가 봅니다.

목불(木佛)을 조성하는데 은행나무는 좋은 재료입니다. 목질이 부드럽고 우윳빛 색이 좋으며 무엇보다 해충이 슬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죽어서 목불로 환생할 수도 있는데, 용문사 은행나무는 곳곳이 목숨 줄을 붙잡고 삶을 지탱합니다. 살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외경(畏敬)을 풍기며 후한의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용문사 부도밭은 은행나무가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본당으로 오르는 길 왼쪽에 소담스런 텃밭 같은 부도밭이 있고 오른쪽에 은행나무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밭과 은행나무가 본당과 각 전각들로 형성된 용문사의 공간을 떠받치고 있는 세입니다. 세상 어느 것인들 시간의 길을 걸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은행나무가 살아 온 천년이 넘는 시간도 사실은 한 점 티끌에 지나지 않으니, 지나 온 시간보다 다가 올 시간의 무량함을 생각하며 더 속연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부도밭에 내려 앉아 있습니다.

용문사 부도밭 안쪽 풍경은 소박합니다. 제법 규모가 큰 사적비 하나가 오른쪽에 서 있고 주인을 알 수 없는 여섯 기의 옛 부도와 최근에 세운 듯한 두 기의 부도가 엇비슷한 키로 서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움츠리지도 않은 풍경을 들여다보는 동안 은행나무 앞에서 움츠음치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합니다. 용문사에서 반드시 친견해야 할 부도는 절 뒤로 난 좁은 길을 따라 200m쯤 올라 간 곳에 있습니다. 1398년 조선 태조 7년에 세워진 정지국사(正智國師)의 부도(보물 제531호)입니다. 먼저 부도를 살펴봅니다. 215cm 높이의 정지국사 부도는 전체적으로 양식이 간결합니다. 보존도 잘 된 편이어서 정갈한 수행자의 풍모를 만나는 기분입니다. 상대석과 몸돌과 지붕돌이 팔각원당형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문양을 생략하고 간소한 마감처리로 검박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무법정한 장대석으로 부도의 영역을 다지고 네모 반듯하게 지대석과 하대석을 설치했습니다. 하대석과 상대석은 연꽃잎으로 각각 복련과 양련의 형상을 새겼는데 이것이 이 부도에서 가장 화려한 조각입니다.



다. 다른 부도에서는 '기본'에 해당하는 문양이 정지국사의 부도에서는 '신경 쓴' 문양인 셸이니 질박하게 안쪽살림을 살다간 수행자의 면모를 부도로 드러내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정지국사는 고려 말 조선 초기를 살았던 고승입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천마산 적멸암에서 입적한 정지국사의 부도와 탐비가 용문사에 세워진 것은 그의 제자인 조안(祖眼)이 용문사 중창의 주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지국사는 살아서 국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사후에 태조가 추증하여 국사로 받들었습니다. 단단한 안살림이 풍기는 법향에 왕이 감복하여 국사로 추증하고 부도와 탐비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정지국사의 탐비는 부도에서 80m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연석에 흙을 파고 빗물을 끼워 넣었는데 키가 110cm로 작은 편입니다. 귀부도 이수도 없이 빗물만 다듬어 자연석에 끼워 둔 탐비는 국사의 탐비 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보전 상태가 좋은 것이나 정갈하게 새겨진 글씨들이 풍기는 단단한 분위기는 어느 호화로운 탐비에 비해 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수행 1100년이 넘는 은행나무, 용문사 경내의 부도밭, 정식을 생략해 단아한 풍모로 수행자의 본분을 강조한 정지국사 부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정지국사의 시대는 혼란기였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시절, 이름을 드러낸 고승도 있지만 이름 따위는 초야에 묻고 '부모미생전'의 '본래진면목'을 참구하는데 몰두한 고승도 있었습니다. 정지국사는 후자에

정진에만 몰두하되 늙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계속하고 조금도 권태를 느끼지 않았다. 입적하던 날, 시자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가부좌를 맺고 앉아 조용히 입적하였다. 화장 후 사리의 기적이 나타나 보고하여 비로소 대중들이 그의 도덕에 탄복하여 참으로 도를 얻으신 분이라고 경탄해 마지 않았다.

최대한 간결한 조각으로 무욕의 아름다움 드러내 무학 대사와 함께 나옹의 제자 된 정지국사 초야에 이름 묻고 수행에 전력 몸돌만 자연석에 끼운 탐비에 정갈한 수행 담겨

해당합니다. 권근(1352-1409)이 지은 비문에 그 풍모가 역력합니다. 비문을 읽어 봅니다.

나옹과 무학 두 스님은 서로 이어서 명망이 높았으므로 왕사가 되어 종풍을 크게 떨쳤다. 사부대중이 물결처럼 달려 와서 앙모하여 따랐지만, 그러나 스님은 항상 홀로 명예와 자취를 감추고 산중에 은둔하여 수행하였고 한 번도 화상(和尚)을 차리고 대중을 지도하거나 강주로서 강원을 주도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짧은 글에서 쟁겨 보아야 할 내용은 크고 큼니다. 나옹과 무학의 시대에 그들과 함께 노닐었던 정지국사이지만, '명예와 자취'를 감추고 홀로 산중 수행에 몰두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혼란기에는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근성입니다. 자신의 위상과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수행자는 어떠한가 할 것인가? 나옹과 무학처럼 당대의 최고 권력을 배경으로 행화를 떠는 길도 있고 정지국사처럼 세상을 잊고 산중에 은거하며 수행본분에 매진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지국사의 비문 가운데 '오로

지 정진에만 몰두하되 늙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계속하고 조금도 권태를 느끼지 않았다'는 대목이 눈길을 잡아당깁니다. 난세에 세속적 욕망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절집에서도 배운 티를 내지 않으며 조용히 자신의 안살림만 다지며 사는 것을 한결같이 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치판은 날마다 싸움판이고 국가 안보는 여전히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열강들의 이권싸움은 계속 됩니다. 100년 전이나 600년 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난세이고 혼탁한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사바세계는 언제나 사바세계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불교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속적 욕망을 품고 부처의 씨앗으로 복전을 일구고자 하는 출가자들이 오히려 세속의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세속의 중생보다 집요하게 물질에 집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고나면 새로운 종단이 만들어지고 눈길만 돌리면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는 행사가 열립니다. 목욕에 초월하지 못하는 수행자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수행자의 탈을 쓴 늑대인 것입니다. 부처님께 서도 이를 경계하셨던 시절이 혼탁하여 부처님 말씀도 '귀찮은 잔소리'가 되어 버린 듯합니다.

정지국사의 삶은 오늘의 한국불교계에 날카로운 사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공부한 무학 대사가 왕사로 잘나가던 시절에도 도반과 다른 길을 한결같이 걸으며 권태롭지 않았고 그 특성이야말로 수행자의 본래면목이 아니겠습니까?

용문사 은행나무처럼 천년이 넘는 세월을 묵묵히 살아내는 저력, 그것은 바로 정지국사의 수행자다운 삶과 맥이 통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숨기고 조용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서입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 앞에서 움츠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지국사도 열반에 든 뒤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 다소 '유치한 쇼'를 한 바탕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문에 나오는 '사리의 기적'입니다. 비문의 첫대목에 바로 사리의 기적을 묘사하고 있으니 그대로 읽어 봅니다.

흥무(洪武) 28년 음해 7월 7일 고승 지천(智泉, 정지국사의 법명) 스님이 천마산 적멸암에서 입적하였다. 화장을 마친 후 몇 일만에 스님의 제자인 지수(誌修)에게 현몽하여 이르기를 "너는 어찌하여 사리를 받치려고 거꾸로 아니하는가?"라 하므로 잠깐 놀라 그의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화장하였던 장소로 달려 가서 무수한 사리를 얻으니 오색이 영롱하고 광채가 났다. 산중의 모든 스님들이 그곳으로 달려가 예배하고 정대하면서 미증유의 신비를 찬탄하였다. 주상(住上)이 소식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시고 정지국사(正智國師)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문인 조안(祖眼) 등이 미치산 용문사로 가서 부도를 다듬어 사리를 안치하였다.

정지국사의 쇼가 우리 시대에도 한 번쯤은 감칠맛입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는설위원)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차 가운데 10좌를 한 눈에 볼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피케이봉(4200m)을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영봉스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과 한국내 영봉스님 후원회 '히말라야의 꿈'이 공동 진행하는 제 2차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참 안내

- ▲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 23일 (15일)
- ▲ 코 스 : 인천공항-대한항공 직항 - 카트만두 - 지리 - 시발라야 - 반달 - 마일리 - 불불레 - 베이스캠프 - 피케이봉 정상 - 준베시 - 반달 - 시발라야(의료봉사) - 지리 - 카트만두(시내관광 등) - 인천공항
- ▲ 인 원 : 30명 선착순.
- ▲ 참가비 : 287만원 (비자비 5만원 별도)
- ▲ 입금계좌 : 718202-01-142493 (예금주 : 임연태)
- ▲ 접수마감 : 4월 2일 (금)
- ▲ 사전설명회 : 4월 3일 (토) 오후 4시 (장소-개별공지)
- ▲ 문 의 : 임연태 (히말라야의 꿈 사무총장) 017-236-5769

공동 주최

- ▲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 히말라야의 꿈

영봉(예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지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칼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부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